

주제107(2018)년 새 학년도 시작, 각지에서 개학식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선언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에 사회주의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총동원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주제107(2018)년 새 학년도 시작되었다.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지난해에 교육부문에서는 전인과학기술인재 화석화와 인재강국건설을 위한 무쌍을 벌려 사회주의교육체제를 더욱 완벽하고 교육환경을 보다 일신시킴으로써 당의 주제적인 교육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새 학년도를 맞이하는 온 나라 전체 교원들과 학생들, 학부모들은 올해에도 새 세계 교육 혁명의 물결을 세차게 지쳐올려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혁명발전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교육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실 현대적 구상을 펼쳐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각지 일군들과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일군들부터가 학교부터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결집된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현대적인 교육설비들과 비품들을 마련해 주는데 앞장섰다.

각지 공장,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새 학년도로 교과서와 참고서, 교복과 학용품 등을 학생들에게 보내주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여 달겨진 생산과제를 빛나게 완수하였다.

2일 전국각지에서 개학식이 진행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북종합대학의 대학, 평양제1중학교, 락랑구역 승리고급중학교, 해주시 무용초급중학교, 평양초등학교, 용진군 남해고급중학교 신도분교를 비롯한 온 나라의 개학식장들이마다서 기쁨에 넘친 신입생들의 광란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행복에 겨워 웃고 떠드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교원들과 학부모들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하여 불면 불우의 헌신과 로고를

교육부문의 일군들과 교원들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풍부하고 높은 창조적능력, 고상한 도덕성모와 건장한 체력을 지닌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재들로 키우는 데서 만고있는 책임과 분수를 다해나가기로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학생들이 조선을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거목강, 미래의 주인들들로 키우게 준비해나가기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학식들이 끝난 다음 각지 대학, 학교, 분교들에서는 새 학년도 첫 수업이 진행되었다.



사회주의 교육체제의 혜택을 배운 나라를 활짝 펼쳐간다. -대성구역 평명소학교에서- 김광림 찍음

당의 후대사랑을 받들어가는 새 세대들의 고결한 정신세계

각지 사범대학, 교원대학 졸업생들 성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 진출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받들어가는 새 세대들의 정신세계가 만사함을 감동시키고있다.

각지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많은 졸업생들이 성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 진출하였다.

후대교육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강성조선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길에 걸맞은 생의 첫 자취를 아로새긴 이들의 소행은 당의 품속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다운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해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행동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과정을 마친 평안북도의 사범대학, 교원대학 졸업생 23명이 성분교와 산골학교 등에 자원 진출하였다.

평북종합대학 자원수제1사범대학 김영성, 교원대학 배금성, 김철중동무들과 선린교원대학의 김정봉동무들은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내일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원아들의 원부, 외전 산골학교의 선생님들이 되기로 결심하고 가족과 함께 자원하였다.

심마음이들의 교육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품는 당의 뜻을 깊이 새겨안은 평북종합대학과 선린교원대학의 많은 졸업생들이 자원하여 산골학교와 분교에서 후대교육사업의 첫걸음을 떼고있다.

평성사범대학 강연이, 김정인, 평성교원대학 오진옥동무들은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영도사적이 뜨겁게 어필되는 양력년 온하리의 구지골고급중학교와 녀령군 산골학교들의 교단에 섰다.

레일밭은 교실에서 지식의 땅을 쌓아가며 사회주의교육체제의 고마움을 배우고 걸맞은 황태복도의 사범대학, 교원대학 졸업생들도 장충군 대덕산고급중학교를 비롯한 최전연지대의 학교들에 보내줄것을 제기하였다.

최전연초소의 군인가족자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모든 지혜와 정열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가족과 함께 진출한 황북종합대학 교원대학 김명봉, 제2사범대학 김정철동무들과 리계순제1사범대학 강은희, 전선희,

김철희동무들의 소행은 인민군인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남포교원대학의 류향순, 리광철, 정진순동무들과 남포사범대학의 배은재, 차순경, 홍정성동무들은 사회의 심초소아아들을 양성조선의 믿음직한 여군들로 훌륭히 키우는 참된 교육자가 될것을 결심하였다.

함흥희학공업종합대학 사범대학 류명진, 제2교원대학 주순영동무들과 함경남도대덕도학원 졸업생 주일봉동무도 부진군 온하리고급중학교, 수봉군 원성고급중학교, 금양군 선린고급중학교 등원분교에 자원 진출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찾아볼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이러한 현실은 우리 당의 숭고한 교육중시사상과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값높은 헌신으로 받들어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의 발현이다.

누가 보진않진, 입아주진않진 조국의 미래를 책임졌다든 숭고한 자각을 안고 후대교육사업에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는 새 세대 교원 혁명가들이 있어 우리 아이들과 학생소년들이 부르는 《산상에 무덤없어라》의 노래소리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미래를 책임질것이 고 더 높이 울려 퍼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중국 길림육문중학교대표단 경모의 정 표식

만수완연하여 높아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일 강구부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길림육문중학교대표단 경모의 정 표식을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개막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빛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체육강국의 밝은 미래를 반드시 앞당겨오려는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의 역적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파시하는 뜻깊은 계기로 된다

남측래권도시범단 시범출연 진행

남측래권도시범단의 시범출연이 1일 태권도전당에서 진행되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희봉동지, 내각주무장 김경호동지,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평양시민들이 시범출연을 관람하였다.

남측래권도시범단 주요성원들이 함께 보였다. 시범단성원들은 음악선율에 맞추어 다양한 무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개막

이런 경기대회에서는 축구, 축구, 배구, 탁구, 복싱, 수중레조무용을 비롯한 수십개 종류의 경기들이 평양시와 남포, 평성, 사리원시 등지에서 진행되게 된다.

개막식이 2일 평명구역 체육경기관에서 있었다.

내각부총리 겸평양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선수, 감독들, 시태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체육상 김일성동지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필승의 신념과 락관에 넘쳐 공화국상징인 일문들을 승려자의 대속전으로 승태히 맞이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동원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각동적인 시기에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를 개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런 경기대회는 주제조선의 체육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북남래권도시범단 합동시범출연 진행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지향하는 거대한 열망이 넘쳐나가는 가운데 북남래권도시범단 합동시범출연이 2일 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희봉동지, 국가체육지도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부장 리일환동지,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평양시민들이 합동시범출연을 관람하였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남측출연, 태권도시범단 주요성원들이 함께 보였다.

남측래권도시범단 성원들은 음악선율에 맞추어 다양한 무도기술과 수법들을 펼쳐보였다.

그들은 여러 락곡과 춤을 격조있는 격과 격과 격을 비롯하여 공격과 방어수법들을 활용한 태권도기술작품들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관람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우리 태권도시범단 성원들은 전통의 모든 세무들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관중을 격동시켰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 조국의 미래로 활짝 피어나거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당과 국가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최대한의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고있다.》

수도의 거미마타에 봄의 기운이 한껏 넘쳐흐르는 4월 2일이 한껏 우리는 뜻깊은 올해의 새 학년도 개학날을 맞으며 락관구역 태권소학교를 찾았다.

앞가슴에 꽃음을 달고 소나무묵기방을 달랑이며 출출듯 학교로 달려가는 신입생들의 귀환과 교정에 들어섰다.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글씨가 금빛으로 빛나는 5층짜리 교사에서 우리 학교가 정말 멋있다고 좋아하며 꽃처럼 활짝 웃는 신입생들의 모습을 보노라니 우리의 가슴은 더욱더 흥겨워졌다. 현관문을 들어서시는 우리를 반겨주는 교장 장충환, 부교장 김경은동무들은 교직원들이 펼쳐내 새 학년도로 학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더욱 일신시켜놓았는데 신입생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의 반감이 있었다고 글씨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개학식시작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데 학교를 돌아보지 않겠는다고 하는 것이었다.

먼저 연례수개설을 찾은 우리는 태양같이 환한 미소로 지르므로 학교학생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본을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쿨에 참가할 여러 나라의 예술인들 도착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쿨에 참가할 여러 나라의 예술인들이 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는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속에서 앞으로는 장래에 예술인들은 세상에 부럽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맑고 씩씩하게 자라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이이 참가자들은 블리코비츠, 청력회복작사실 등을 비롯한 회복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조성장애 어린이회복원 개학식 진행

조성장애 어린이회복원에서 2일 개학식이 진행되었다.

조선장애자보호위원회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회복원의 어린이들, 보육원, 교양원, 의사들과 학부모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어린이들속에 제시된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미술작품에 꽃바구니와

스위스에 갔던 최고인민회의대표단 귀국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인 조국 통일연구원 원장 리중혁동지들은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쿨에 참가할 여러 나라의 예술인들 도착



스위스에 갔던 최고인민회의대표단 귀국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쿨에 참가할 여러 나라의 예술인들 도착

